

# 특집

## □ 石油製品시장 동향과 전망 □

# 石油製品 수입압력과 日本의 대응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

産油國으로부터의 석유제품수출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다. 70년대에 사우디 아라비아 등이 계획했던 수출용 정유공장이 앞으로 2년내에 본격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그 대응에 부심, 7월 9일 IEA(국제에너지기구) 각료이사회를 소집, 그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日本도 이미 산유국으로 부터의 제품수입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어 通産省 資源에너지庁, 석유업계 모두 가부간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 精製量은 그저 숨기기만

페르샤灣에 임해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도시 주베일. 지난 5월, 하루 정제능력 25만배럴 규모의 정유공장이 가동을 개시하였다. 이 정유공장은 사우디의 페트로민(석유자원광물公社)과 메이저인 셸이 50%씩 합작하여 건설한 것으로 그 목표의 하나는 日本을 포함한 極東市場인 것으로 알려졌다.

日本의 석유관계자는 이전부터 이 정유공장이 얼마만큼 휘발유를 정제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유공장측이 그 문제에는 널리 알리고 싶지 않은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정보가 새어 나오지 않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 정유공장으로부터 하루 1만5천배럴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자원에너지庁은 행정지도로 휘발유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페트로민측은 그것을 알고 日本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日本 업계관계자는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페트로민 자신이 「휘발유나 등유를 앞으로 日本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東京사무소)고 선언하고 있다.

쿠웨이트도 작년에 日本市場을 의식한 움직임 보였다. 美国의 게티石油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三菱石油의 주식을 처분하고자 했을 때, 쿠웨이트가 그 주식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적이 있다. 「쿠웨이트는 三菱石油에 자본참가함으로써 日本에의 제품수출의 발판을 굳히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업계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買收는 에너지庁이 사실상 저지활동을 하기도 하여 실현되지는 않았다.

### 威脅은 오히려 아시아産

OPEC 13개국의 석유제품수출은 81년에 하루 13

만배럴이었다(日本에너지經濟研究所). 석유에 부가가치를 붙여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2년 정도 사이에 대폭적으로 정제능력을 증강할 계획이다. 能力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은 분분하지만, 크게 말해서 1990년 시점에서는 지금보다도 하루 100만배럴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83년의 세계 제품수출량은 하루 552만배럴이나 되는 상당한 양이다.

선진국의 석유정제업은 현재 需要침체로 苦境에 빠져 있다. 이런 가운데 産油國으로부터 제품이 들어 온 것은 참기 어렵다고 하는 위기감이 EC諸國을 중심으로 강하게 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산유국의 석유제품에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이다. 그에 따라 日本에 석유제품이 얼마나 유입될 것인가가 어느 정도 결정될 것이다.

競争力を 보는 것 중의 하나의 포인트는 輸送費다. 「예를 들면 사우디의 안부정유공장에서부터 西歐로의 수송비는 배럴당 65센트다. 한편 日本까지의 수송비는 1 배럴당 2.57달러까지 먹힌다」(牛島・三菱石油社長)고 한다. 따라서 同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日本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商社측의 말로는 日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우디의 주베일정유공장과 쿠웨이트의 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다. 그러나 가령 日本이 휘발유를 포함한 석유제품의 수입을 自由化할 경우 이들 나라로부터 어떤 제품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인가는 분명치 않다.

「수입을 自由化할 경우의 문제는 中東으로부터의 제품수입은 아니다. 中国, 싱가포르, 韓國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다」(牛島氏)라고 하는 소리는 많다.

### EC委案에 業界反撥

5월초 來日했던 EC委員會의 오드란드 에너지總局長은 1987년까지 사우디, 쿠웨이트, 리비아의 3개국 정제능력은 연간 6천만톤(하루 약 12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가동률 85%로 해서 연간 약 5천만톤을 日本, 美国, 西歐에서 공평하게 引受하자고 제안했으나, 「그는 産油國의 에이전트 같다」 「가격면에서 매력 없는 것을 무

리하게 사게 할 작정인가」하고 에너지庁, 석유업체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그러나 日本 국내로부터도 휘발유수입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는 한편 日本석유정제업이 나아갈 방향을 기본적으로 수정하자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산유국의 석유제품수출의 本格化를 앞에 두고 戰後 일관하여 석유행정 기본이었던 소비지정제주의가 日本 경제전반을 두고 생각할 때 유리한지 어떤지, 재검토를 강요받고 있다.

### 中東의 주요 수출정유공장 현황

나라	정유공장	能 力 (千B/D)	준공연도
사우디아라비아	안 부	250	1984
"	주 베 일	250	1985
"	라 비 그	325	1986
쿠 웨 이 트	미나·아부두라	150	1986
리 비 아	라스·타 누 라	220	1985
합		1,195	

「日本の 주유소 휘발유판매가격은 美国의 꼭 2배다」—석유업계에서 歐美주요국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을 조사한 바 이런 결과가 나왔다. 日本은 145円 전후인데 대하여 美国은 70円强, 西獨은 약 110円, 英國은 약 120円, 프랑스는 140円 전후로 판매되고 있다. 다만 이 가격에는 各國 모두 고율의 세금이 포함돼 있으므로 稅後 가격으로 비교해 보면 日本만이 90円 정도인데 歐美諸國은 모두 50円대에 머물고 있다.

### 收益불균형의 構造

日本은 0당 휘발유가격이 실질적으로 30円 이상 높다. 휘발유의 국제경쟁력은 제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日本의 국제경쟁력이 매우 지나치게 마찰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대에 휘발유만이 유보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이다.

石油連盟會長인 日本石油의 建内保興社長은 이점에 관해서 「휘발유만이 이익이 남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프타나 重油는 제품수입이 인정돼 국제가격을 기준

으로 거래되고 있다. 등유는 소비자 대책으로 「不當」하게 싼 가격을 강요하고 있어 휘발유에 본래는 다른 제품에서 의당 벌어야 할 收益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그 휘발유를 판매하는 流通業界에는 거의 6만개에 육박하는 주유소가 난립하여 과당경쟁을 계속하고 있다. 판매량을 늘리려고 싸게 파는 경우는 石油元売會社의 決算이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주유소당 종업원을 8명으로 볼 경우 거의 50만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하는 유통업계 고위층도 있을 정도로 유통업계의 체질은 취약하다.

이런 가운데 휘발유 수입이 일부라도 자유화될 경우 그 영향이 심각할 수 밖에 없다. 가격이 싼 수입휘발유에 질질 끌려 주유소는 가격할인 경쟁이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고, 도산하는 元売도 나올 것이다. 元売 會社들의 우려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出光興産 1社만은 「휘발유수입이 자유화 되더라도 그에 대응한 체제를 갖추면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出光, 昭介사장)는 입장이다. 해외지점에서는 석유제품의 3국간 거래를 개시하고 착착 日本의 「解禁」에 대비하여 트레이닝을 쌓고 있다.

出光의 주장은 「소비자가 바란다면 당연히 자유화해야 하고 더구나 우리 자신이 직접 다루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日本石油을 필두로 다른 元売는 「지금까지도 가격할인으로 처달고 있는 주유소를 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出光처럼 명쾌하게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또 한편으로 조건만 갖추면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 安定供給의무가 필요

그 조건으로는 우선 첫째로 안정공급의무를 완수하는 자에게만이 휘발유수입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石油各社가 추진하고 있는 90日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매우 싼값에만 특정의 고객에 눈을 돌려 수입하는 업자는 배제하는 것이다. 요컨대 「좋은 것만 먹을려는 업자는 인정치 않고 元売會社를 휘발유수입의 주체로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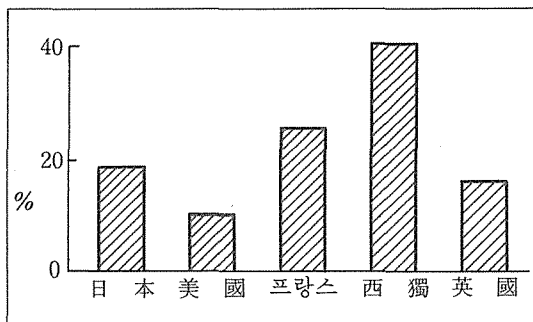
고 하는 것이다.

元売各社에는 나프타나 벵커-C油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商權을 잃어버렸다는 반성이 있다. 「석유회사의 탱크나 棧橋를 사용치 않으면서 實體는 전력회사가 수입하고 있다」고 수입담당자는 한탄하고 있다. 벵커C油의 수요를 대폭적으로 감소시키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 LNG수입도 전력이나 도시가스, 商社의 「聯合軍」의 손에 떨어졌다.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휘발유마저 잃게되는 것은 절대로 피하고 싶은 사태일 것이다.

### 新價格體系를 주장

두번째의 조건은 휘발유만이 收益商品으로 되어 있는 가격체계를 고쳐 등유나 重油 등의 수요처에도 제품수입의 영향으로 인화된 휘발유가격분의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이다.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이외에 등유나 경유, 重油類 등 많은 제품이 나온다. 휘발유에서 이익이 남지 않게 되면 다른 제품의 수익성이 좋게 되는 新價格體系를 정부가 만들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主要國의 石油製品 수입비율



- 註 : 1) 1983년 기준, OPEC통계를 참조로 작성  
 2) LPG가 포함됨.  
 3) EC諸國의 경우 域內에 수입한 제품을 재수입하고 있다. 이것을 빼면 西獨은 22.4%, 英國은 10.3%가 된다.

정부가 지도하는 휘발유 생산한도 하에서 휘발유 중심의 가격체계를 세워 온 元売會社에는 석유제품의 자유화에 대하여 그대로 말하는 분이 있는 것

은 당연하다. 그러나 円貨 가치하락에 의한 악영향이 있었다고는 할 수 있고 원유가격이 하락하는 好條件에 혜택을 입으면서도 84년도 決算에서 經常赤字를 기록하는 석유회사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석유업계의 체질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영책임을 묻게 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제품자유화 문제를 기회로 유통을 포함한 석유업계 전체의 발본적인 구조개선이 추구하고 있다. 주유소의 整理, 統合은 물론, 과잉정제설비의 처리나 重質油분배장치의 도입 등 과제는 많다. 그것은 동시에 제품수출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産油國에의 대책도 될 것이다. \*

(日本 經濟新聞 6. 5 / 6 일자)

□ 産油國動向 □

# 관심끄는 사우디의 바이터 去來

최근 産油國들의 바이터(barter)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사우디 아라비아가 작금 여름에 이어 대량의 原油와 전투기의 바이터 거래를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되어 여러 가지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PIW등 石油專門誌에 의하면, 총액 20억 달러의 이 거래는 사우디와 프랑스간에 실시하는 것인데, 미라지-2000 젯트機 48대 및 부품과 교환해서 7만b/d의 原油를 3년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수출원유의 공식 평균 가격 27.33\$/B로 환산하면 바이터 原油의 규모는 7,300만 배럴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사우디와 실제로 바이터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CFP社는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중순에 訪佛한 사우디의 압둘 아지드 國防擔當副首相의 방문목적은 바이터 거래의 계약체결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양국의 여러가지 움직임은 보면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한다.

작년 여름 사우디는 보잉 747機와 原油 3,400만 배럴의 바이터거래를 함으로써 石油市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험이 있다. 즉 30~40만b/d의 바이터 原油가 3개월간에 걸쳐 시장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시황이 약세를 보여 原油價格의 인하 압력을 가져오게 하였던 것이다. 금년 1월 OPEC총회에서 결정된 기준 원유가격의 폐지, Arab Light의 1\$/B 가격인하는, 바이터 거래로 인한 사우디의 수급조정 능력 저하, 또는 OPEC의 盟主로서의 지위가 강화됨으로써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조치로 볼 수 있다.

原油 去來의 수량을 보면, 이번의 바이터 거래는 작년 거래량의 배 이상이나 되는 막대한 양이지만, 알려진 것 처럼 7만b/d 정도의 시장유입량에 그치는 것이라면 市場에 대한 영향은 훨씬 적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우디가 요즘과 같은 시기에 바이터 去來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세계 각국의 석유업계에서는 의아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사우디의 石油政策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종래 이란, 이라크를 비롯한 여타 OPEC各國이 적극적으로 바이터 거래를 해왔으나 사우디는 현금결제로 원유거래를 해왔다. 그런데 작년부터 바이터 거래를 함으로써 사우디의 石油政策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되고 나아가서는 OPEC 전체의 단결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생기기 되었다.

지난 3월 중순에 美國 백텔社와 체결했던 카심, 슈카이크 양 정유소(정제능력 각 16만b/d)의 건설계약을 아람코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사우디의 財源不足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번 바이터 거래의 직접적인 요인에는 이러한 경제적 측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과거 사우디의 石油收入은 1981년에 1,155억 달러에 달해, 재정예산면에서도 대폭적인 세입 초과를 보여 왔다. 그러나 그 후 소비국의 수요감소, 탈석유화, 그리고 83년 3월의 5\$/B 유가인하 등의 영향으로 재정은 차츰 압박을 받게 됨으로써 현재 석유수입은 500억달러 이하로까지 급감하고 있다.